

석장승만 쓸쓸한 절터 지켜

남도 땅은 밭다. 깊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유달산 가까워지면 파도소리로 잦아드는 '목포의 설움' 고향에 스미고, 월출산 신령스런 숲빛은 지친 가슴을 파고든다. 가쁜 길 에둘러 무안 땅 몽탄면 승달산 기슭에 이르러 '총지마을' 어귀엔 기다림에 지친 석장승(전남 민속자료 제23호) 노부부 여전히 안녕하시다. 해 어스를 비친 절터 안에 상사화 꽃무리 오솔길까지 달려 나올 터이지만, 석장승 노부부 너스레를 떠는 사이, 마을 안 골목 수도 세어볼 참이고, 산비탈에 갈나무, 까치밥도 챙겨 볼 참이다.

무안은 '석장승'의 고장. 장승을 나무로 깎지 않고, 돌로 다듬어 마을이나 절 입구에 세워 놓는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일일이 곡절을 따지고, 오물오물 아쉬움을 곱씹는 것이 무안의 풍습이다.

장승은 되도록 뭉텨야 하는 것. 나무로 깎은 목장승이든 돌로 깎은 석장승이든 눈을 밤불처럼 튀어나오고, 콧방울은 실목거리고, 고집이 세거나 심술궂게 보여야 하는 것. 누구나 골과 망치 하나면 한나절 팔방울로 장승하나쯤 거뜬히 일으켜 세운다. 일으켜 세우기 무섭게 금세 헛기침을 해대는 것이 장승이다.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 이정표이다. 악귀를 물리치고, 역병을 막기 위해 마을의 입구에 신상(神像)으로 서 있거나 길 잃은 길손들을 위해 노표로 서있는 것이다. 운흥사터 풀장승, 불회사 측백나무길 등 뒤에도 석장승들이 웅크리고 있다. 총지사터 길목의 노부부 석장승도 그저 장승이 아닌 불법을 수호하는 장승 중의 장승들이기에 만나면 시주도 하고 싶고, 등도 굽어 주고 싶은 것이다.

무안은 또한 '품바'의 발상지이다. '품바'는 일로움 의산리에 소재한 천사촌을 배경으로 밀바닥 인생의 한과 아픔을 풍자한 의성어이다. 본래는 각설이 타령의 후렴구로 사용되었으나, 개인의 음악, 개인의 대명사로 일반화되었다. 각설이 타령의 '각설(覺說)'과 석장승들의 의상과 심술로 남도의 하늘 밑은 언제나 편안하다. 무안이야말로 노령산 팔자락에서 아랫목처럼 퍼져라 앉고 싶은 편안한 곳이다.

총지사는 그 절 이름에서 보듯 밀교적인 냄새가 짙게 풍긴다. 본격적인 발굴작업이 안되어 그 사료적 증거로 내세울 유구조차 캄캄하지만 운주사의 그 수많은 비로자나불과 '옴마니반메 흠' 숭막새, 총지사의 사명 '총지', 인근 법천사의 창건 유래로 보면 한때나마 이 지역에 밀법이 성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운주사의 비밀을 캐는 논서 가운데도 이즈음 밀교적인 연관성을 내세우는 것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 총지사지는 우리나라 불교사의 흐름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도 언젠가 한 번 본격적인 발굴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사는 법천사와 함께 신라 성덕왕 때 서역 금지국(金地國, 간다라)의 승려인 정명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바닷길로 들어온 서역의 전법자에 의해 창건된 절이라면 고구려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기존의 통설을 고쳐 써야 하는 귀중한 사적이 되는 것이다. 총지는 모든 것을 다 지녔다는 비장(秘藏)의 뜻이다. 밀교적 용어로서 다라니(진언)를 의미한다. 모



무너진 절터에 상사화 두었어 피었다. 어와디야 상사디야.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으니 잎은 꽃을 그리워하고, 꽃은 잎을 그리워한다. 온 곳도 간 곳도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은 비밀스런 절터에 긴긴 사연 꼭꼭 묻어 둔 산각사의 숨결인가. 몸뚱이 신열 든 덩기머리 컷불처럼 외줄기 꽃대 위에 허클어진 가는 머리 상사화 두었어 피었다. 남도 땅은 어이하여 상사화가 지친인가. 함평 용천사, 고창 선운사. 풍경소리 은은한 산사의 오솔길엔 기러기 때 오프라넷 스텝네들 발뒤꿈치 소리조차 없는데, 풀숲의 상사화들이 어이 저리 목을 뽑고 천년의 기다림으로 숨바꼭질을 하는가. 무너진 절터에도 상사화가 피었다. 그리움 한데 모아 총지(總持)인가, 기다림조차 무너져 버린 옛 가람 빈터에 오늘도 못미더운 약속이듯 상사화 두었어 그렇게 앞세도 다지운 채 저허꺼리 피었다.



벼이삭이 노를 뒤로한채 서 있는 할아버지석장승.



100여m만이 남아있는 축대.

든 것을 다 지녔어야 할 총지가 지금은 텅 빈 절터가 되어 마을 밭이 되고, 고추밭이 되었으니 비밀의 단서가 될 줄지어 하나 남



총지사지에 남아있던 주초석 자리를 땅 주인이 필자에게 가리키고 있다.

기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총지사는 신라의 밀교 승으로 대당 구법 여행을 떠났던 혜통이 665년에 개산한 것으로 되어있다. 혜통은 혜일, 명랑과 함께 중국에 건너가 당밀(唐密)을 공부한 역사적 인물이고, 개산 시기인 665년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이므로 그의 총지사 개산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총지사는 처음 백운산에 창건되었으나 고려 현종 7년(1016)에 화재로 소실되어 이 곳 승달산 기슭으로 옮겨 중창했고,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된 것을 재차 중건하였다고 한다. 지금 총지마을로

사지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지금의 우리 불교는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쏟고 있는지 막막할 따름이다. 안락까운 마음에 절 뒷편 대숲을 파고드니 풀을 뜯던 흑염소 한 마리가 놀란 듯 뒷걸음친다. 그 흑염소가 고삐를 걸친 자리로 '당골' 이요, '종샘'이 있는 곳이며, 황닐을 밟는 깨진 기왓장과 청자 파편이 즐비한 것이다.

절터에 절이아 있던 없건, 상사화는 길목에 피어 길손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석장승 노부부는 아직도 금실이 좋은지 마주보는 자세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마을을 바라보며, 오른쪽에 있는 키 작은 장승이 할아버지 장승이고, 맞은편에 비스듬히 서 있는 것이 할머니 장승이다.

장승들 앞에는 판석이 있어 옛날에는 여기에도 공양물이 올려졌던 모양이다. 도로 양쪽에서 매연을 마시면서도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는 장승이야말로 깃발힐수록 강해지는 우리네 민간신앙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절터가 엉망이니 다시 또 오라는 석장승의 당부들 가슴에 새기며 북상하는 저문 차창에는 상사화 잔영이 어른거린다.

법당 주초석 포크레인 동원 도굴

절흔적 한점없이 마늘·고추밭으로 변해

한때 승려800·승방200·암자 9개의 대찰

불리는 몽탄면 대치리 일대가 모두 총지사의 사역으로 승려 800여명, 승방 200동에 암자가 9개에 이를 정도로 대찰이었다.

총지사의 폐사에 관하여는 어찌구비 없는 사연이 전한다. 총지사가 없어진 것은 순조 10년(1810) 무렵인데, 당시 총청도 헌감을 지낸 임면수가 명당으로 소문난 총지사 뒤에 그의 아버지의 묘를 쓰자 승려들이 반대하여 묘에 참나무 막목을 박아버렸다. 이렇게 하여 승려들과 임씨 문중 사이에 싸움이 나고, 그 외중에 임씨들이 총지사를 불 질러버린 것이다. 지금도 절 뒤쪽 능선엔 그때의 무덤들이 남아 있다. 불교와 유교의 세 싸움에서 천년의 고찰은 없어졌으나, '바라이죄'를 범한 그 무덤들은 남아 여전히 무덤에 잔디를 기르고 있는 것이다.

법당 터에는 최근까지 주초석 18개가 가로 90m 세로 80m의 크기로 서로 연결된 채 남아 있었으나, 불교계와 관할부처가 눈감고 방심하는 사이 도굴범들이 포크레인까지 동원하여 들어가 버렸다. 주초가 놓였던 자리에는 땅을 파 뒤집은 흔적이 역력하고 땅 주인은 농사짓는데 방해되던 터라 말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폐

〈시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건=고영배 기자
다음은 김철 길항사터

무안 총지사 터 가는길

총지사지는 전남 무안군 몽탄면 대치리에 소재한다. 나주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목포로 가다가 무안에서 811번 지방도로로 좌회전하여 달산저수지를 끼고 7km 정도가면 몽탄역이 나오고 총지사지는 왼쪽 길 안 쪽 대치리에 있다. 총지마을 입구에 석장승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정작 사지는 안내 표지조차 없어 마을에서 길을 물어야 한다.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행운을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해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도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2문제 맞추지 못해 낙방하는 수험생이 50%이상 된다는 통계를 보면 이것은 실력의 문제 보다 마음의 안정이다. 그러므로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몸에 꼭 지니고 가야합니다.

격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날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일공휴일이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분께 개뿔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으시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는 다음 27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8cm이며 신용카드도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 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전북도 정상명 일러두시면 유채꽃 명가로 전국이 다 받아 줘주시고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723-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중랑구 안원동 177 1층 B/D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 ~ 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만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와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들 물론 업무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워드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던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방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는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집단 바쁘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키워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중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LCD형 영어로봇 '뉴지니컴'

용체 전면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 9